

부산

혼자 여행하는 여성을 위한 부산 가이드북

Made by NomadHers with love

Nomad
Her

&

VISIT
BUSAN



Illustration by Sheryline

목차

Intro	4
1. 노매드힐 평점	5
2. 한 문단 요약	6
3. 부산을 여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	7
4. 긴급 상황에 대비한 번호	9
5. 이건 해도 괜찮아요	10
6. 이건 하지 마세요	13
7. 혼자 여행하는 여성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관광 코스	15
THEME I. 오늘, 드넓은 푸른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당신에게	16
1. 송정해수욕장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핑을 즐겨보세요.	
2. 부산을 대표하는 바다, 해운대에서 부산 바이브를 마음껏 느껴보세요	
3. 광안대교에서 요트를 타면서 바다 위로 쏟아지는 노을을 가슴에 담아보세요.	
THEME II. 오늘, 부산 속의 진한 로컬감성을 느끼고 싶은 당신에게	20
1. 주민들의 일상의 공간에 예술이 더해진 감천문화마을의 감성을 느껴보세요.	
2. 부산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천국, 영도를 탐험해보세요.	
3. 사람 사는 냄새나는 부산 로컬마켓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THEME III. 오늘, 여행 중 힐링과 같은 심이 필요한 당신에게 26

1.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해동용궁사를 걸으며 오래 품었던 소원을 빌어보아요.
2. 도심 한가운데에서 심을 느낄 수 있는 동백섬을 걸어보아요.
3. 흰여울마을의 카페거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4. 태종대에서 깊은 바다와 울창한 숲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5. 부산 해변에서 열리는 선셋요가 클래스에 참여해보세요

THEME IV. 오늘, 기분전환을 하고 싶은 당신에게 30

1. 해변열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안의 또 다른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2. 스카이라인루지를 타고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겨보세요.
3.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며 바다 위를 나는 듯한 경험을 느껴보세요.

8. 식사 추천 장소 33

1. 송정해변의 조개구이
2. BIFF 광장의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
3. 다양한 부산 대표 음식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갯통시장의 야시장
4. 부산의 채식주의자들이 사랑하는 맛집

9. 부산 숙소 추천 41

숙소선택 팁

부산 숙소 지역 추천

10. 혼자 여행하는 여성 여행자를 위한 교통수단 43

11. Disclaimer 49

12. 노매드헬 소개 49

INTRO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혹 들어 온 도움의 손길을 가장 많이 받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아 나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면 내 시야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혼자 여행을 시작하면 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에게 향하는 시선을 놓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세계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여행에는 다정함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보이실 거예요.

**노매드헬은 여성들의 혼자 여행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노매드헬 평점

글로벌 여성 여행자 앱 노매드헬은 여성 여행자들에게 부산을 얼마나 추천할까요?

(😞 별로예요, 😊 괜찮아요, 🍷 추천해요)

Our score is: 🍷 추천해요

부산은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도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별점 3개를 드릴게요. 왜냐구요? 혹시 낮보다 밤이 더 밝은 도시를 가본 적 있으신가요?

부산은 새벽까지도 식당들이 문을 열고 밤바다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도시 전체가 늦은 시간까지 북적댄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거기다 대중교통으로 도시 전체가 촘촘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은 어디든, 심지어 바다와 산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따뜻한 로컬 사람들의 정도 느낄 수 있는 도시, 이곳은 부산입니다.

혹시 여행 중 길을 잃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떡하냐구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세요. 도시면서도 로컬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부산은 사계절 내내 따뜻한 기후로 관광객이 일 년 내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여행자들을 만나는 것에 익숙하답니다. 따뜻한 로컬 사람들의 정도 느낄 수 있는 도시, 이곳은 부산입니다.

한 문단 요약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활기찬 도시예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넘치는 이 도시의 활기에 익숙하답니다.

혼자 여행 중인데 길을 잃어버렸다구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부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있다구요! 이렇게 친절해도 되냐구요? 그럼요! 한 번 오면 또 오게 되는 부산의 매력을 부산사람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부산은 놀랍게도 도시와 로컬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높은 빌딩 사이에서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거기다 서핑, 요트, 크루즈 같은 해상 스포츠 뿐만 아니라 잘 조성된 숲도 많아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랍니다. 거기다 부산만의 특색이 담긴 로컬음식들은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맛보고 싶어 하는 버킷리스트 음식들로 가득해요! 그럼 부산으로 여행을 같이 떠나 볼까요?

부산을 여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억양이 강하고 부산에서 통하는 고유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드라마의 단골 소재로도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부산 사투리를 처음 들을 때는 당황할 수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고 몇몇 문장은 기억해 났다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산 사투리의 멋이겠죠? 자주 쓰이는 말 몇 마디 알아놓으면 부산 여행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으니 알고 가면 더 좋겠죠?

맞제?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맞음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스름돈 1,000원을 주면서 이 금액 남겨주는 게 맞제?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라카노?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빠른 영어로 길을 물어봤다면 가장 자주 듣게 될 말일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라카노?



지기네!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에서 옷을 고르는데 점원분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옷을 보며 그 옷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기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안타! 혹은 개안나?

나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 너 정말 괜찮니?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매운 음식을 먹고 얼굴이 빨개진 당신에게 개안나?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 상태 괜찮아요? 라며 걱정돼서 건네는 말입니다.



와이라노?

상대방에게 너 왜 그러냐? 라는 뜻의 사투리에요. 어린아이가 예쁜 장난감을 발견하고 사달라고 조를 때 와이라노? 라고 쓸 수도 있구요. 너무 바빠서 핸드폰을 두고 밖을 나왔을 때 스스로에게 나 요즘 와이라노? 라고도 쓸 수 있어요. 활용도가 다양하죠?



오이소!

여기로 오라는 말이에요. 로컬마켓을 간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거예요. 이리로 오이소, 여기로 오이소라고 하면 한번 구경하고 가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4

긴급 상황에 대비한 번호

여성으로서 처음 가본 도시를 혼자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안전인 것 같아요. 타 국가나 도시를 갈 때 비상 연락망을 핸드폰에 적어놓고, 혹시 모를 폰 분실을 대비에 노트에도 적었던 경험들 한 번쯤 있을거예요. 참고로 비상 연락망 뿐만 아니라 여권도 복사본을 하나 더 챙겨놓으면 여권 분실 시에 대사관에 갔을 때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팁으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특히 혼자 여행을 준비 할 때는 꼭 각 나라나 도시의 비상 연락망을 챙기는 것을 추천해요.

노매드월이 부산 여행을 할 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비상 연락처를 알아봤어요.

1330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 서비스 1330

부산을 여행하다가 긴급하게 외국어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으로 전화해보세요. 24시간 운영되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식당이나 택시 등에서 급하게 통역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등 여행중에 닥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어요.

1336

24시간 여성 긴급전화 1366

여행 중 성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경우 여성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 인권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며 외국어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이 연계되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112

부산 경찰서 112 / 각국 대사관 연락처

신변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의 경찰서로 전화를 하거나 미리 여러분 국가의 주한대사관의 비상연락처를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해요.

이건 해도 괜찮아요

여행 계획을 짜며 여행할 곳에 관해 공부하면서 나름 많이 알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순간 얼음이 된 적이 있나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곳을 가든 처음이 주는 어색함을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혹은 비행기 안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쓱 읽으면 도착했을 때 부산이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질 Do and Don't 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사투리에 따뜻함을 느껴도 괜찮아요.

부산 사투리를 처음 듣다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억양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혹시 저 사람 나한테 화난거 아니야?” 혹은 “혹시 싸우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나절만 지나도 어느새 부산 사투리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장담해요. 강한 억양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한 부산사람들의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밤에 광안대교 야경을 보며 밤거리를 걸어도 안전해요.

혹시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도 밤거리를 혼자 다녀본 경험이 없으시다구요? 그렇다면 놀라지 마세요. **부산의 밤은 낮보다 훨씬 밝답니다.**



부산은 밤에 보는 야경이 정말 예쁜 도시예요. 특히 광안대교의 경우 계절별로 점등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요일-목요일의 경우 일몰부터 24시까지, 금요일-토요일은 일몰부터 새벽 2시까지 조명이 켜져 있고, 레이저쇼는 매일 3회(20:30, 21:30, 22:30) 약 10분간 켜집니다. 늦은 저녁에도 화려한 광안대교의 조명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해변에 정말 많아요. 부산은 여성 혼자 밤에 걷기에도 안전한 도시랍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흥정을
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갯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자갈치 시장에 가보는 것을 추천해요. 자갈치역 10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정도 걸으면 부산 해산물의 성지 자갈치 시장이 있어요. 1층은 해산물을 파는 곳이고, 2층은 구입한 해산물을 여러 반찬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상차림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있답니다. 여러 해산물을 다양하게 맛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럴 때 노매드힐에서 함께할 동행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2인기준 4만원에서 5만원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혼자 부산 갈맷길을
걸어보세요.

갈맷길은 부산의 산책 코스로 해동용궁사에서 이어지는 산책길이에요. 혼자 여행을 하면서 사색이 필요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코스는 없을 거예요.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도시의 떠들썩함에 흥에 겨울 때도 있지만 잠시 떨어져 자연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죠. 좀 더 깊숙이 내 안의 나를 바라보고 싶을 때 말이에요. 부산에서는 굳이 도시 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부산 곳곳에는 바닷가를 따라 만들어진 해변 산책로가 많거든요.

특히 갈맷길 코스 중 1코스 2구간의 일부인 문탠로드에서 송정해수욕장을 지나 해동용궁사로 이어지는 약 10km, 총 3시간이 걸리는 산책 코스가 인기가 좋아요. 걷다 보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걷고 있지만 동시에 함께 걷는 느낌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답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님께 내 목적지까지
가는지 물어보세요!

혼자 여행을 할 때 어려움 중 하나가 나 혼자 처음 가본 길을 찾아서 가야 한다는 것일 거예요. 도시 자체도 낯선데 길까지 찾아야 한다니 난감하죠? 버스를 타는데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맞는지 혹시 반대 방향에서 타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린다면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목적지까지 가는지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뿐만 아니라 도착지에 다 왔을 때쯤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말씀해주실 기사님들을 자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카페나 상점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포기하기엔 일러요.

한국은 모든 거리, 모든 가게에 CCTV가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밤늦은 시간에 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놀랄 거예요.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놀라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새로운 곳을 혼자 여행하다 보면 짐도 많고 이것저것 챙길 게 많으니 깜빡하고 가끔 카페나 상점에 물건을 놓고 오기도 하죠? 이미 몇 시간이나 지났는걸, 그 사이에 이미 누가 가져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낙담하지 마세요. 카페 주인이나 그것을 발견한 다른 손님들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인 거 같다고 가게에 맡겨 왔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부산에서는 사람들의 친절함을 기대해도 된다는 것을요!**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 해도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전날 밤 여행 사진을 정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차 그만 핸드폰을 충전해놓는 걸 깜빡했다구요? 걱정 마세요. 많은 부산 카페들에는 콘센트도 충분히 설치되어있고 충전을 가져오지 않은 손님들을 위해 충전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숙소에서 나올 때 **배터리 충전을 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커피를 주문할 때 살짝 혹시 충 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무료 와이파이의 천국

부산은 주요 관광지,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마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속도도 무척 빨라요. 카페나 식당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으로 제공되니 주문할 때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돼요.

6

이건 하지 마세요

**여행을 계획할 때는 최대한
거리가 가까운 코스끼리
묶어서 계획하는 것을
추천해요.**

부산 지도를 보면, 부산은 세로로 긴 땅 모양인데요. 즉 지도상으로는 서로 가까워 보이는 거리일지 몰라도 실제로 가면 꽤 멀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한 번 가는 데 30분이라면 왕복 1시간이 훌쩍 넘게 되고 그러면 자칫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부산 여행계획을 짤 때에는 이동 거리를 고려한 촘촘한 계획을 짜는 것이 다른 곳보다 더 필요하답니다.

**여름에만 수영을 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매년 부산의 겨울 해운대 앞바다에는 이색 이벤트가 펼쳐져요. 바로 북극곰 수영대회. 정말 추운 겨울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바다로 달려가 수영을 한다면요? 바로 80m의 바닷물에서 수영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대회가 매년 부산에서는 연초에 열려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산의 겨울 바다도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데요.

**유명한 관광지나,
액티비티를 이용할 때는
평일이어도 미리 시간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을
추천해요.**

부산은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유명한 관광지나 액티비티를 이용할 때 평일이더라도 너무 딱 시간 맞춰서 갔다면 그 시간에 못 타고 다음 타임 시간으로 밀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때는 한 타임에 탈 수 있는 승객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탑승 시간 최소 30~40분 전에는 정류장에 미리 가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해운대해변열차(블루라인파크)의 경우에도 미리 예매 했더라도 바다가 잘 보이는 1열에 앉고 싶다면 출발 시간보다 일찍 가서서 줄을 서는 게 좋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주세요.**

새로운 도시의 길을 걸으며 마시는, 이제 막 원두를 내린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빵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만 커피를 포함한 음식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다 먹어주세요. 몇 년간 부산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청결과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서 음식물 냄새를 풍기거나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들고 있던 음료가 앞에 사람에게 쏟아진다면 곤란하겠죠? 대중교통 안에서 음식물 섭취 자체는 부산에서 중요한 공공예절 중 하나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핫스팟은 모두
대중교통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산의 대중교통은 지하철, 버스가 있는데요. 부산의 모든 지하철과 버스는 도시 전체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부산을 방문할 때는 자기 차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 간격도 8-15분 간격으로 짧고 어디든 연결되어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부산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관광 코스

혼자 여행을 하며, 내 마음이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나의 감정이 이렇게 다양했구나를 느끼며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똑같은 일상을 살 때는 저 깊숙이 숨겨져 무뎠던 감정이, 새로운 곳을 여행하면서 잠자고 있던 감각을 깨우는 것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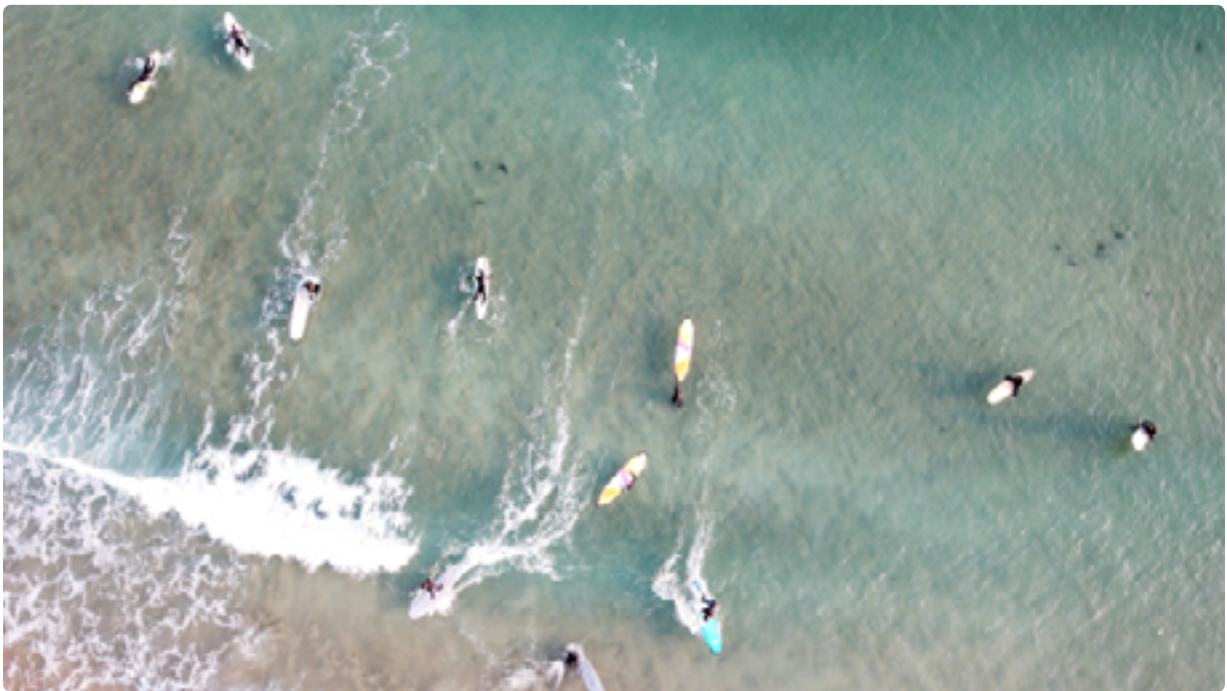
혼자 부산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감각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이 될 거예요. 하루는 조용히 힐링하고 싶고, 다음 날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매일 변하는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은 것도 달라졌답니다. 노매드월이 그날의 무드에 따라 가보면 좋을, 해보면 좋을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드넓은 푸른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당신에게

1 송정해수욕장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핑을 즐겨보세요.

만약 사계절 내내 따뜻한 바닷물과 적절히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파도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 풍덩 뛰어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송정해수욕장은 이런 최적의 조건으로 부산서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사실 아직 서핑은 많은 이들에게 낯선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여행을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한 번도 서핑을 해보지 않았다고 쭈뼛쭈뼛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핑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부산 해변가에 놓인 서핑 샵에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노을을 바라보며 바다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서핑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에요. 긴 해변을 따라 서핑 가게들이 모여 있어 서핑에 대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한 번에 배울 수 있어요.



© Surfing (by Surfhollic)



Q. 서핑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송정해변의 대표적인 서핑스쿨 2곳을 소개합니다.

• 서프홀릭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레벨별 클래스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곳이에요. 서핑뿐만 아니라 숙박, 요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 : 1회 강습 65,000원(수트, 보드대여 포함)

운영 시간 : 매일 06:00~21:00

가는 법 : 부산지하철 동해선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송정해변 앞

Instagram : @surfholic_kr



© Surfing (by Surfholic)

• 송정서핑학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레벨별 클래스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곳이에요.

가격 : 1회 강습 65,000원(수트, 보드대여 포함)

운영 시간 : 매일 06:00~20:00

가는 법 : 부산지하철 동해선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송정해변 앞

Instagram : @sjscsurf

2 부산을 대표하는 바다, 해운대에서 부산 바이브를 마음껏 느껴보세요

이곳은 한국인의 여름 휴양지로 가장 사랑받는 곳이에요. 해운대를 가보면 왜 이곳이 부산의 상징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해변에서 수영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구요? 해운대에서는 수많은 즐길 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5분만 걸으면 갯 잡은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는 해운대전통시장도 가볼 수 있구요.

| 해운대의 낮과 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일몰 후부터는 해운대 해변에 약 1.6 km 달하는 조명이 자정까지, 여름 피서철에는 새벽 2시까지 켜져서 밤 해변을 더욱 낭만적으로 느끼게 해준답니다.

저녁에는 위험하 지 않냐구요? 전혀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밤의 해변을 구경하러 나온 부산사람들과 여행객들로 해운대가 더 활기차 질 거예요. **혼자 여행을 하는 여성 여행자라도 해운대 바닷가의 북적하고 시끄러운 분위기는 전혀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해운대의 낮과 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3

광안대교에서 요트를 타면서 바다 위로 쏟아지는 노을을 가슴에 담아보세요.

부산을 구경하다 보면 바다에 정박한 요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부산의 바다 어디를 가든 요트투어가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을이 서서히 물과 하늘 위로 퍼지는 늦은 오후에서 초저녁 시간대의 요트투어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요트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전혀요!

부산의 요트투어는 대부분 아름다운 광안대교를 도는 코스가 많아요. 가격은 배의 크기와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코스에 2만 원~4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 요트를 타고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탄 요트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챙겨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신답니다. 음악을 틀어주는 곳도 있어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마 1시간이 짧게 느껴질 거예요.

Q.요트투어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에는 많은 요트투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에요. 대부분 가격과 코스가 비슷하니 내 여행 일정에 맞는 곳을 선택하면 돼요.

• 요트탈래

부산 더베이101에서 출발하는 요트투어로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광안대교 뷰를 즐길 수 있어요. 승선을 위해 신분증 가져오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가격: 주간 타임 20000원 / 선셋 타임 40000원 / 저녁 타임 30000원

운영 시간: 매일 09:00~22:00

가는 법: 부산지하철 2호선 동백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Instagram: @yachttale

• 요트홀릭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하는 요트투어로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광안대교 뷰를 즐길 수 있어요. 승선을 위해 신분증 가져오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가격: 주간 타임 30000원 / 저녁 타임 35000원

운영 시간: 매일 11:00~23:00

가는 법: 부산지하철 2호선 동백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Instagram: @yachtholic



© Yacht tour photos (by Let me Yacht)

오늘, 부산 속의 진한 로컬감성을 느끼고 싶은 당신에

1

주민들의 일상의 공간에 예술이 더해진 감천문화마을의 감성을 느껴보세요.

부산 여행을 검색했을 때, 혹시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한국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곳 바로 감천문화마을이에요.** 부산의 마을 예술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술 작가들의 창작공간이 생기면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합심해서 마을 전체가 일상 속 예술을 품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곳에 오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주민의 삶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마을의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마을 입구의 안내센터에서 2천 원에 스탬프 투어 지도를 살 수 있어요. 지도에 나온 곳을 따라가다 보면 예술작품들이 설치된 골목길, 전망대, 박물관, 벽화, 갤러리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운영 시간 :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마을의 시설들은 9시~18시까지 운영하니 참고해주세요. (겨울철은 17시까지 운영)

가는 법 :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 6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사하구 1-1번, 서구 2번, 서구2-1번 중 탑승 후 감천문화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돼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이 꽤 많아요. 운동화를 신는 것을 추천해요. 물도 챙겨가면 좋겠죠?



나 좀 새로운 젊음이 느껴지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바로 부산 영도를 추천해요!

영도의 서쪽을 시작으로 현재 영도는 지역의 이야기와 자산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부산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전통주와 맥주를 개발하고, 폐창고와 오래된 수영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영도의 제철 음식으로 레스토랑을 여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뜻을 품은 청년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이들이 모여 영도를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 좀 새로운 젊음이 느껴지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바로 부산 영도를 추천해요!

아래 장소들은 걸어서 서로 5분 거리에 있어요. 함께 가면 좋겠죠?

• 영도의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인 복합문화공간, AREA6

영도를 오랫동안 지켜온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복합문화공간이에요. 2021년 오픈했으며 현재 10개의 업체가 입주해있어요. 전통주를 만드는 곳, 전통차를 만드는 티 카페, 예술가들의 작품을 포스터와 엽서로 만드는 아트굿즈 가게, 가죽공방, 전통공예품 가게 등이 있어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가 딱 아닐까요?



운영 시간 : 매일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무)

가는 법 : 근처에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어서 버스를 추천해요. 카카오맵에서 AREA6를 최종목적지로 설정하면 현 위치에서 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안내됩니다.

Instagram: @area6.yeongdo

© AREA6 (Cultural Space)

• 오래된 수영장의 변신, 젬스톤

오래 방치된 수영장이 600평대의 카페 겸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에요. 기존 수영장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살려 카페 곳곳에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디자인과 가구 가 특징입니다. 오래된 수영장이 힙한 카페로 변신하다니 신기하죠? 규모가 크다 보니 카페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들이 많답니다. 특이한 컨셉의 카페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을 한번 방문하는 것도 추천해요.

운영 시간 : 매일 11:00~22:00 연중무휴

가는 법 : 근처에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어서 버스를 추천해요. 카카오맵에서 젬스톤을 최종목적지로 설정하면 현 위치에서 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안내됩니다.

Instagram: @gemstone_official_



© Samjin Fish Shop

• 3대에 걸쳐 내려온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제조가공소, 삼진어묵 본점

어묵은 생선 살을 발라 밀가루와 함께 뭉쳐서 만든 음식으로 어묵을 이용한 반찬은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부산어묵은 생선 살의 함유량이 월등히 높아 맛이 뛰어난 게 특징이에요. 영도의 삼진어묵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브랜드로 영도의 삼진어묵에 오면 김치 어묵, 연근 어묵, 고추튀김어묵, 프렌치프라이 어묵 등 다양한 어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산 여행을 하게 되면 어묵을 이용한 음식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부산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 어묵의 다양한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운영 시간 : 매일 09:00~18:00 연중무휴

가는 법 : 근처에 가까운 지하철역은 없어서 버스를 추천해요. 카카오맵에서 삼진어묵을 최종목적지로 설정하면 현 위치에서 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안내됩니다.

Instagram: @samjinamook

3

사람 사는 냄새나는 부산 로컬마켓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국제시장-강동시장-보수동책방골목은 모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온 김에 함께 구경하면 좋겠죠?

-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곳, 국제시장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로컬마켓을 구경하는 재미를 빠뜨릴 수 없겠죠!

국제시장에 오시면 큰 규모에 한번 놀라고, 진열해 놓은 다양한 물건에 한 번 또 놀라실 거예요! 이곳은 부산에서 가장 큰 로컬시장으로 옷, 액세서리, 조명, 인테리어 소품, 가방, 원단, 한복, 간식거리 등 없는 것 빼고 모든 것을 국제시장 이곳에서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평소에 패션이나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곳은 그야 그야말로 천국일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2~3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를 정도로 볼 것이 많은 곳이에요.

혼자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투리에도 한번 꼭 빠져보세요.

운영 시간 : 매일 09:00~20:00, 매월 1,3주 일요일 휴무

가는 법 :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7번 출구



• 먹거리 야시장의 천국, 갯통시장

갯통시장은 낮보다 저녁이 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왜냐구요? 매일 저녁 야시장이 열리기 때문이죠. 갯통시장에는 원래 맛집들이 매우 많은데요. 거기에 더해 저녁이 되면 맛있는 야식을 파는 포장마차들까지 들어와 야시장이 열려 갯통시장은 저녁 내내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들과 찾는 손님들로 북적댄답니다.

무엇부터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다음 장에 소개될 추천 음식 편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카드 계산도 되긴 하지만 적은 금액을 계산할 때는 현금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부산 갯통 시장에서는 씨앗 호떡, 떡볶이, 비빔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부산의 길거리 음식 (Street Food)의 명소를 원한다면 갯통시장을 추천해요.

운영 시간 :

- 갯통시장 08:00-20:00

- 야시장 19:30-23:30

- 모두 연중무휴

가는 법 :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7번출구



• 오래된 고서들을 만날 수 있는 보수동책방골목

여행을 갈 때 로컬책방을 한 번씩 꼭 들리시는 분이라면 보수동 책방골목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서점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래된 서적을 판답니다. 구경하다 보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문 책과 한자로 쓰인 옛날 고서, 무협지와 잡지 그리고 현재는 절판된 책이나 지금은 구할 수 없는 LP도 건질 수 있으니 이곳은 마치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동 책방골목의 책방에서 요즘은 커피나 간단한 음료도 시킬 수 있는데, LP에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책 읽는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때요?

운영 시간 : 운영 시간은 책방마다 다르지만 해질녘이 되면 문을 하나둘씩 닫기 시작하니 자세히 구경하기 위해서는 저녁보다는 햇빛이 있는 오후에 오셔서 여유롭게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가는 법: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7번 출구

오늘, 여행 중 힐링과 같은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

새로운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최대한 많이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다 그만 쉽게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여행을 일처럼 생각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꼭 경험해야 하는 것들로 꽉꽉 채우지 않으면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불안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혼자 하는 여행은 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아니에요. **혼자 여행은 오히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미처 보살 피지 못했던 내 마음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경험이기도 해요.**

만약 뽀뽀하게 여행 일정을 짰다면 하루 정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내 맘의 쉼을 위한 여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1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해동용궁사를 걸으며 오래 품었던 소원을 빌어보아요.



절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으로 스님들이 불경을 공부하며 수도를 하기 위해 지어 졌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절은 산속 깊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해동용궁사는 딱 트힌 동해바다와 마주하고 있어서 빼어난 경치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절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부처님 불상이 있는 곳에서 절을 드리는 불자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해동용궁사는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원을 마음에 품고 절을 둘러본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운영 시간: 새벽 5시~일몰 전까지 / 무료입장

가는 법: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에서 181번 버스를 타고 오면 돼요.

2 도심 한가운데에서 쉼을 느낄 수 있는 동백섬을 걸어보아요.

일정상 멀리까지 갈 시간이 없지만 도심 안에서 숲과 바다를 동시에 보고 싶다면 해운대를 끼고 있는 동백섬으로 오세요. 총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입구에서 10분 정도 걸었을 뿐인데 울창한 동백나무와 소나무로 둘러싸인 산책길이 눈 앞에 펼쳐질 거예요.

| 근처에 있는 더베이101 에서 보는 야경도 근사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가는 길 사이사이 바다를 한쪽에 두고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숨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벤치에 앉아 파란 바다가 만드는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들으면서 자연이 주는 힐링의 순간을 만끽해 보세요.** 산책로의 끝에는 멋진 등대와 APEC 하우스도 만날 수 있어요. 근처에 있는 더베이101 에서 보는 야경도 근사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정말 열심히 달려온 나 스스로에게 “그래도 괜찮아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운영 시간 : 무료입장. 24시간 운영

APEC 하우스 : 관람료 무료, 입장 시간 09:00~17:00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관)

가는 법 : 지하철 2호선 동백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3

흰여울마을의 카페거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세요.

어디를 가든 힐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쁜 카페에서 마시는 맛있는 커피 한잔 일 거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흰여울마을은 산비탈에 만들어진 마을로 한국 영화들의 주요 배경지로 선택될 만큼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이에요. 알록달록 집들이 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알록달록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면, 부산 흰여울마을은 흰색의 마을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게 특징이에요. 언덕 위로는 멋진 경치를 커피와 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들과 공방들이 줄지어 있으니 다리가 아프다면 잠시 카페에 들어가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덕 아래로는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걸을 수 있는 긴 산책로가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이니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것을 추천해요. 또 바다를 마주 보고 라면을 먹는 조그마한 가게들도 있는데 바다를 보고 먹는 라면이야말로 꿀맛 아니겠어요?



운영 시간 : 카페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니 너무 늦은 저녁은 피하는 게 좋겠죠?

가는 법 : 지하철 1호선 남포역 6번 출구에서 6, 9, 82, 508번을 타시면 돼요.

4

태종대에서 깊은 바다와 울창한 숲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매년 새해에 부산사람들이 찾는 일출명소이기도 합니다.

높은 바위 절벽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소나무로 우거진 숲이 한데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곳이에요. 매년 새해에 부산사람들이 찾는 일출명소이기도 합니다. 걸어갈 수도 있고, 입구에서 다누비열차를 타고 전망대, 등대, 태종사를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중간에 내렸다 다시 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각각의 지점에서 보이는 파란 바다와 기암절벽이 이루는 풍경이 굉장하니 놓치지 마세요. **만약 늦은 오후에 간다면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일몰 풍경을 꼭 감상해보세요. 특히 영도등대는 자세히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이는 바다전망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총 3시간이 걸리는 코스입니다. 열차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걸을 일이 많으니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요.

운영 시간 : 05:00~24:00 운영 / 무료입장.

가는 법 : 지하철 1호선 남포역에서 버스 8, 30, 66, 88번 승차

태종대 입구 다누비 열차 요금 : 성인 기준 3000원

5

부산 해변에서 열리는 선셋요가 클래스에 참여해보세요

| 바쁜 여행 일정에 잠시 휴식 같은 선물이 될 거예요.

봄에서 가을까지 해운대, 송정해변을 중심으로 해변요가, 선셋요가가 수시로 열려요. 내가 가는 일정에 열리는 원데이클래스가 없는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비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구글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노매드힐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부산에 사는 노매드힐들이 내 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줄거예요. 따뜻한 모래 위 해변에 앉아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찾는 내 마음속 평화는 바쁜 여행 일정에 잠시 휴식 같은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기분전환을 하고 싶은 당신에게

여행지에 오면 간혹 약간의 일탈을 해보는 것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혼자 여행을 하니 물론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겠죠? 부산에서는 재미있는 기구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요. 가볍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1

해변열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안의 또 다른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옛 철길을 개발해서 만든 해변열차와 스카이 캡슐을 탈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해변 열차를 타고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해변열차 자유이용권을 이용할 경우, 미포에서 송정까지 가는 동안에 들르는 경유지마다 내려서 구경 후 다시 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 평일에도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해요.

노선(해변열차) :

- 미포정거장-달맞이터널-청사포정거장-다릿돌전망대-구덕포- 송정정거장
- 총 4.8km 왕복 운행, 편도로 약 30분 소요

요금(해변열차) : 1회이용권, 2회 이용권, 자유이용권 각 7,000원, 10,000원, 13,000원

운영 시간 : 계절마다 운영 시간이 상이하니 예약하실 때 확인해주세요.

가는 법 : 지하철 2호선 중동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예약사이트 : <https://www.bluelinepark.com/booking.do>

2 스카이라인루지를 타고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겨보세요.

| 맞은편에는 해동용궁사가 있어서 함께 일정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하게 제작된 루지를 타고 언덕 위에서 내려오면서 스피드를 즐기는 어드벤처 액티비티예요. 리프트를 타고 출발점으로 올라간 후 구불구불한 길을 빠르게 타고 내려옵니다. 조작 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총 4개의 코스가 있고 평일에는 2개 코스, 주말에는 4개 코스가 다 오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맞은편에는 해동용궁사가 있어서 함께 일정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금 : 2회 22,000원, 3회 26,000원, 4회 30,000원, 5회 33,000원

운영시간 : 평일 10:00~18:00 주말 10:00~19:00

가는 법 : 1003번/1001번 버스를 타고 181번 버스로 환승한 후 용궁사국립수산물과학원 정류장 하차

예약사이트 : <https://www.skylineluge.kr/busan/>

3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며 바다 위를 나는 듯한 경험을 느껴보세요.

송도해수욕장의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총 1.62km를 에어크루즈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크루즈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에요.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끼면서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와 함께 부산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모습은 또 다른 멋이 있어요.



요금 : 에어크루즈 , 크리스탈크루즈 왕복 운행표 각 15,000원, 20,000원

운영 시간 : 매일 09:00~20:00

가는 법 : T지하철 1호선 탑승 후 자갈치역 1번 출구에서 일반 버스 6, 26, 30, 71, 96, 96-1번 환승

예약사이트 : <http://busanaircruise.co.kr/main/main.html>

식사 추천 장소

혼자 여행을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매일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부산에 오면 먹어봐야 할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음식들이라 보니 부산 어디를 가든 이 음식들을 파는 식당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1 송정해변의 조개구이

| 부산 어디를 가든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곳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동해가 품에 안은 도시 부산은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해산물의 천국이에요. 부산 어디를 가든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곳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송정해변에는 갓 잡은 조개구이를 파는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풍미를 더 할 버터와, 치즈를 조개 위에 살짝 얹어서 함께 구운 조개구이는 부산에 왔다면 먹어봐야 할 대표 음식이에요.

가격은 보통 4~5만 원대여서 혼자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노매드형 앱에서 함께 할 친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부산에서는 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10일간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어요. BIFF(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광장에서는 유명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Ⅰ 광장 양쪽으로 쭉 늘어선 길거리 음식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달달한 꿀과 견과류가 잔뜩 들어간 씨앗호떡은 꼭 먹어야 할 필수음식이예요. 이 외에도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납작 만두, 부산어묵 등 다양한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BIFF광장을 가득 메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즐겨보세요.



BIFF광장에서 15분만 걸어가면 강동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열리는 **야 시장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리는데요.** 이때가 되면 더 많은 야식을 만날 수 있어요.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구요? 이곳에 오면 다양한 음식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 먹어야 할 음식을 소개합니다.



• 밀면

한약재와 돼지고기를 넣고 오랫동안 끓여낸 진한 육수에 새콤함, 달콤함, 매운맛 이 3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양념장을 얹고, 푸짐한 돼지고기 수육을 얹어서 먹는 차가운 면 음식이에요. 진한 양념 맛을 좋아하면 비빔밀면을, 진한 육수의 맛을 더 느끼고 싶다면 시원한 얼음 국물과 함께 나오는 물밀면을 추천해요. 날이 더울 때 밀면 한 그릇 먹으면 더위가 싹 사라질 거예요.

• 돼지국밥

부산에는 수십 년 전통을 이어온 돼지국밥집이 많아요. 다른 도시에서도 이 국밥을 먹으러 주말이면 부산을 방문하곤 합니다. **돼지 뼈를 장시간 푹 우려낸 뽀얀 국물에 돼지 수육을 넣어서 밥과 함께 말아 먹는 음식이에요.** 함께 나오는 새우젓이나 부추김치 등과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답니다. 뜨끈한 국물을 한 입 먹는 순간 왜 부산사람들의 소울푸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 **해물파전**

전은 한국식 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의 해물파전은 특히 오징어, 바지락, 홍합 등 해산물이 푸짐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잔뜩 들어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어낸 갓 구운 해물파전을 한 입 먹으면 접시가 다 비워질 때까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을 거예요.



- **유부전골**

유부란 기름에 튀긴 두부를 말하는데요. 유부전골은 양념한 고기와 잡채를 유부 안에 넣은 후 미나리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 묶어서 어묵탕과 함께 끓여낸 음식이에요. 어묵탕의 부드러운 맛과 유부 주머니 안의 잡채 양념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감칠맛을 만들어 낸답니다.



• 부산어묵과 물떡

어묵은 으깬 생선 살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음식으로 한국인이 매일 먹는 반찬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부산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 살의 함유량이 높은 부산어묵은 전국 각지로 택배를 보낼 만큼 인기가 많아요. 시장을 돌아다니면 어묵과 함께 하얀색 기다란 떡도 함께 파는데요. 어묵 국물에 푹 담겨 간이 밴 쫄깃쫄깃한 물떡도 어묵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겁니다.



• 부산 로컬들이 사랑하는 개미집 낙지볶음

부산하면 해산물을 빼놓을 수 없는 이곳에서, 개미집 낙지 볶음은 부산 로컬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무엇보다 1인분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서, 혼자 여행 중이라도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콤한 소스와 함께 나오는 새우와 낙지를 김과 밥에 참기름을 가득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개미집 낙지볶음 식당은 부산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혹시 내가 가는 곳 근처에 식당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아요.

혹시 채식주의자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비건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부산의 채식주의자들이 사랑하는 맛집을 알려드릴게요.



1 누구나 비건을 맛볼 수 있도록, 영도의 아르프 비건 레스토랑(arp)

비건 문턱을 낮춘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으로 영도에 새로 생긴 비건 식당으로 시간별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오전과 오후에는 제철 채소를 이용한 브런치바로 운영되고, 저녁에는 비건버거와 고사리 파스타 등의 식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가격 : 메뉴당 평균 15,000원

운영 시간 : 12:00 - 21:00, 목요일 휴무

가는 법 : 남포역에서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며,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맵을 통해 현재 위치해서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알아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요.

Instagram: @arp_kitchen



© Arp vegan restaurant

2

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운대의 비건 핫플레이스, 홈비스트로 (Homebistro)

비건 레스토랑이자 바로도 운영되는 곳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병아리콩을 이용한 후무스 샐러드와 샌드위치, 버섯탕수육, 타코, 바질 페스토 플레이트를 먹을 수 있어요. (당일 식자재에 따라 메뉴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가격 : 메뉴당 평균 15,000원

운영 시간 : 수~토 18:00~23:00 | 휴무 일, 월, 화

가는 법 : 해운대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Instagram: @homebistroandcafe



© Homebistro vegan restaurant

3

소박한 동네 비건 식당을 찾고 있다면 광안리 해수욕장의 부산 러브얼스(Loveurth)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느낄 수 있는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단호박 크림파스타, 바질페스토 크림파스타, 감자 물냉이 샐러드, 비건버터커리 등이 있습니다. 메뉴는 주기적으로 바뀌니 방문전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가격 : 메뉴당 평균 12,000원

운영 시간 : 매일 11:30~20:00(브레이크타임 15:00~17:00)

가는 법 : 지하철 2호선 광안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Instagram: @love_urth



© Loveurth (vegan restaurant)

3

샐러드볼 전문카페 풀풀(FULL FULL)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보울을 파는 곳이에요. 두부를 이용한 코리안보울, 리코타치즈를 넣은 리코탈리아보울 등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샐러드를 파니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가격 : 메뉴당 평균 9천 원대

운영 시간 : 11:30~22:00(Break time 15:30~16:30)

가는 법 : 전포역 7번 출구 도보 5분

Instagram: @fullfull_salad

부산 숙소 추천

여행을 할 때 일정을 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숙소를 정하는 일일 텐데요. 편안한 숙소가 그다음 여행 일정에 큰 여행을 끼치기 때문이죠.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 여행자라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숙소 선택일 거예요. 하룻밤을 묵더라도 안전할까? 라는 걱정을 여행 내내 떨칠 수가 없으니까요. 숙소 예약을 하기 전에 노매드들이 준비한 안전한 부산 숙소를 선택하는 팁을 참고해주세요.

1 숙소선택 팁

1.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주 이용자가 연령대가 높은 층이라면 괜찮은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령대가 높은 손님일수록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 까다로운 손님이 많은데요. 이런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게스트하우스가 이들이 원하는 휴식과 편안함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장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만약 특정 숙소가 다른 곳보다 연령대가 높은 손님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2. 보안 이슈는 호스트가 어떤 자세로 숙소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도 해요. 호스트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며 게스트들과 어울린다면, 만약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겠죠? 이런 후기를 발견했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3. 청결 문제가 이슈가 된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와 호텔은 가격이 평균 2-3만 원대로 저렴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숙소들이 많아요. 숙소 운영에 있어서 청결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만약 이 기본적인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청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보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4. 숙소 위치는 변화가에 있는 곳이 좋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면 숙소에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도 생기구요. 그럴 경우를 대비에서 되도록 저녁에도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변화가에 숙소를 구하는 것을 추천해요. 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가 교통도 편리하답니다.

- 해운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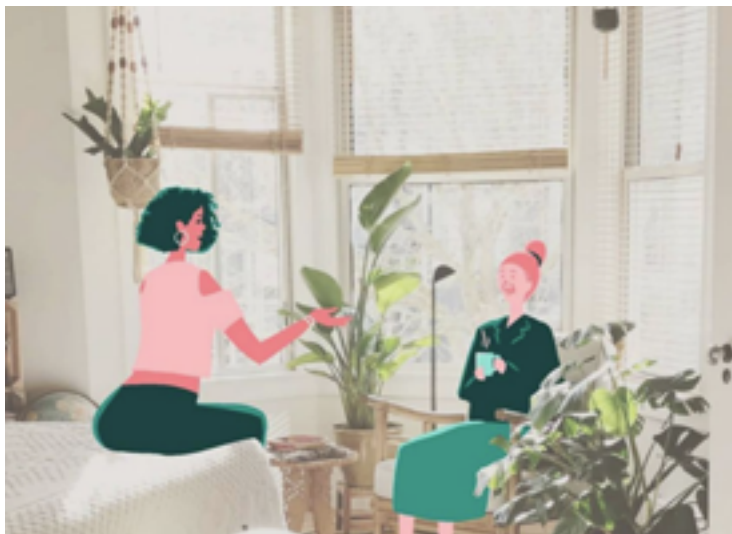
해운대는 부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 중에도 자주 찾는 곳으로 부산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1성급 호텔들이 즐비해 있고 밤바다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해운대 근처의 많은 식당들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므로 낮보다 더 밝은 곳이 해운대예요. 그만큼 여행자들이 많이 묵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매우 많다는 것이 장점이예요.

- 자갈치역

자갈치역 주변에는 BIFF 광장, 국제시장, 갯통시장 등 부산의 대표 야시장과 전통시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 새벽에도 활기를 띠는 곳이에요. 저녁 늦게까지 야식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하답니다.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곳에 숙소를 잡고 천천히 미식 탐험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 서면역

서면역은 주변에 대학교들이 많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부산의 젊음의 거리이기도 해요. 서면역으로 바로 이어지는 지하 쇼핑 거리가 있어 옷, 액세서리, 화장품 등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이 근처에 머물면서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혼자 여행하는 여성 여행자를 위한 교통수단

혼자 여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나 홀로 짜야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일단 여행을 시작하면 부산만큼 교통이 잘 짜여져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의 지하철과 버스 노선도가 복잡할까 봐 걱정이라구요? 걱정 마세요! 이번 부산 여행에서는 노매드헬이 여러분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이 장에서는 부산을 가는 방법과 함께 부산 시내에서 여러 관광지를 이동할 때 이용하기 편한 교통수단을 안내해드릴게요.

부산을 가는 방법 3가지

부산을 가는 방법에는 각각 비행기, 기차, 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다면?

부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김해국제공항이라는 공항에 도착해야 해요. 부산 국제 공항이 아니라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김해 국제공항)이라고 명칭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 저렴한 항공권은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확인하면 좋아요.**

- 김해 국제공항에서는 “경전철”을 타고 부산 시내로 도착할 수 있어요.
- 김해 국제공항 1번 출구로 나오면, 경전철 타는 곳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 부산 시내로 연결되는 일반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는 사상역까지는 약 20분정 도 걸리며, 이후 최종목적지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 표는 공항역 내의 자동발매기에서 최종목적지를 입력한 후 구입하면 돼요. **기본요금은 1,400원부터이며 목적지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 만약 공항역에서 해운대역까지 간다면 2,000원을 넣으라고 화면에 친절하게 안내가 될 거예요. 해당 금액을 넣고 표를 구입하면 됩니다. 옆에 환전소가 있어 쉽게 원화로 바꿀 수 있어요.
- **한국 교통카드가 있거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2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다면

기차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역으로 가야 합니다. **부산역까지 타고 갈 수 있는 기차는 총 3가지 종류의 기차가 있고 원하는 기차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발지인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게요.

KTX (Korea Train Express): 성인 기준 59,800원, 약 2시간 40분 소요. (훨씬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격이 60,000원으로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무궁화호: 성인 기준 28,600원, 약 5시간 40분 소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차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기차이기도 해요. 한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기차를 타고 지나치는 매력도 놓칠 수는 없겠죠)

ITX 새마을호: 성인 기준 42,600원, 약 4시간 40분 소요

한국의 기차 통합예매시스템인 코레일 (Korail) LetsKorail 에 들어가면 이 3가지 기차의 시간표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10분에 1대씩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출발하니 일정에 맞는 열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산기차역은 부산지하철 1호 선 부산역과 연결되어 있으니, 연결통로를 따라 바로 지하철역으로 간다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코레일 예매사이트: <https://www.letskorail.com/>

3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다면?

버스를 타고 부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은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 같이 혼자 여행하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더 좋겠죠! 부산 중심지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시외버스터미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소개할 버스터미널 모두 아래 사이트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티머니 시외버스 예매 사이트 : <https://txbus.t-money.co.kr/main.do>

1. 부산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이곳에서 내리면 걸어서 5분 거리에 2호선 사상역이 있어요. 이곳에서 부산의 젊음의 거리 서면역까지 지하철로 17분이면 도착한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발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산은 어떻게 가나요?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연결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탑승->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도착

하루 2차례 운행, 13:30, 19:00 서울 출발, 총 4시간 40분 소요, 성인 기준 32,700원

2.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이곳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해운대역이 있고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 바닷가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해운대 주변에 숙소를 잡았다면 바로 짐을 풀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어떻게 가나요?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연결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탑승->
부산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도착

하루 3차례 운행, 7:30, 9:50, 17:00 서울 출발, 총 4시간 50분 소요,
성인 기준 36,800원

3. 버스로 부산을 갈 때 참고사항

도로 교통상황에 따라 부산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더 걸릴 수 있어요. 부산에서의 일정이 짧다면 버스보다는 비행기나 기차로 부산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요.

버스의 경우, 중간에 한번 휴게소에 들르며, 약 15분간 정차합니다. 한국의 휴게소에는 맛있는 간식거리들을 팔지만 버스 안에서는 먹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부산 시내에서 이용하기 좋은 교통수단 소개

Tip 1. 부산 시내를 혼자 여행한다면 3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입니다. 조금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토박이 택시 기사님의 미주알고주알 부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Tip 2. 한국의 구글맵인 카카오맵을 다운받아서 가면 좋아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아주는 기능도 있답니다.

Tip 3. 지하철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지하철만 이용할 경우

지하철만을 이용한다면 역 안에 있는 표 발매기를 이용해서 표를 끊으면 돼요. 혼자 여행자라면 아래의 3가지 옵션을 추천합니다.

1회 승차권 : 기본 운임 1,400원부터 시작. 구간 길이에 따라 추가 비용 차등 부과

1일권 표 : 가격은 5,000원이며, 발매한 하루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경전철, 동해선은 적용 제외)

7일권 표 : 가격은 21,000원이며, 7일간 20회까지 사용 가능(경전철, 동해선은 적용 제외)

2 버스를 이용할 경우

부산 시내버스에는 크게 마을버스(동네 순환), 시내버스(근처 부산 시내 순환), 좌석 버스(부산 내에서 장거리 이동 시 이용) 3종류의 버스가 있어요.

기본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각각 약 1,150원, 1,300원, 1,800원입니다. 하지만 매번 현금과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비를 결제하면 불편할 거예요. 실제로 부산사람들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찾기 드물고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해요. 지하철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교통카드 종류 : 티머니, 캐시비 카드
- 교통카드 구입비 : 약 3,000원
- 어느 편의점에서든지 쉽게 구입 및 충전 가능
- 지하철, 버스, 택시 결제 가능
-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 현금 이용보다 100원 할인 혜택 또한 다른 노선의 대중교통을 연속으로 탔을 경우에도 할인 혜택 제공
- 서울 및 다른 수도권의 도시에서도 사용 가능
- 택시를 제외하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시에는 승하차 시에 교통카드를 꼭 찍어야 다른 추가금액이 붙지 않아요.

3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순환하는 시티투어버스가 있어요.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 돌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행을 하기 전 부산을 한 바퀴 돌고 싶거나, 짧은 일정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시티투어버스 소개

• 레드라인 : 부산역 <-> 해운대 순환

하루 9회 운행되며 부산역을 출발해서 유엔메모리얼파크, 광안리, 마린시티, 해운대, 센텀시티를 포함한 15개 정류장으로 거치며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를 지나가는 코스이에요.

부산역 첫 출발은 09:45, 마지막 회차 출발은 16시 35분입니다.

• 그린라인 : 부산역 <-> 태종대 운행

하루 9회 운행되며 부산역을 출발해서 태종대, 용두산공원, 오륙도 스카이워크 등 총 14개 정류장을 지나가는 코스예요.

부산역 첫 출발은 09:30, 마지막 회차 출발 16시 20분입니다.

- **블루라인 : 해운대 <-> 용궁사, 기장시장 순환**

50분 간격으로 9회 운행되며 해운대를 출발해서 달맞이길, 청사포, 송정해변, 해동용궁사 등을 포함해 총 16개 정류장을 지나는 코스예요. 해운대 첫 출발은 10:20, 마지막 회차 출발 16시 45분입니다. 현재(2021. 11월 기준)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예요.

- 1일 탑승권은 각 정류장에서 탑승할 때 버스 기사님께 구매할 수 있어요.
- 1일 탑승권을 이용하면 24시간 동안 추가 비용없이 3개 라인을 모두 탈 수 있습니다.
- 첫 탑승 후 24시간 동안 적용되며, 야경 투어는 포함되지 않아요. 야경 투어나 테마 투어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표를 구매하시면 돼요.
- 운행 정거장 중 무정차 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시티투어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 주말에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고 싶다면 버스 출발 30분 전에는 기다리는 것을 추천해요.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운행하지 않아요.
- **이용요금** : 성인 기준 1일권 15,000원
- **사이트** : <http://www.citytourbusan.com/ko/00main/main.php>

4 택시를 이용할 경우

혼자 택시를 탈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비용일 텐데요. 여러 명이 같이 가면 택시비를 나눠 낼 수 있어서 아무래도 버스를 타는 것보다 저렴할 때가 있거든요.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택시를 타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비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택시를 타기 전에 카카오맵으로 현재 나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검색해 보세요. 일반 택시비로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프거나 빨리 이동하고 싶을때 택시를 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 **이용요금**

일반택시 : 기본요금 3,800원(기본거리 2km) + 이후 거리에 따라 추가금액.

모범택시 : 기본요금 6,000원 (기본거리 3km) + 이후 거리에 따라 추가금액.

- **택시 이용 팁!**

택시 운전자분들의 경우 부산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부산 이곳저곳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고 매일 밖에서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맛 수준으로는 이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맛있고 푸짐하게 한 끼를 먹어야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분들 중에 미식가가 많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기왕 탔으니, 이야기를 나눠보며 부산의 맛집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Disclaimer

이 가이드북은 여성 여행자가 혼자 여행을 통해 더 큰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가기
응원하는 마음에서 노매드헬과 부산관광공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가이드북에서 알려드린 정보가 그사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새로운 소식을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매드헬에게 연락해 주세요.

도시와 로컬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 부산은 혼자 여행을 떠나기 좋은 도시입니다. 바닷가
사람들 특유의 친절함과 저녁 늦게까지 밤 해변과 야시장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이거든요. 또한, 산과 바다에서 서핑, 요트, 트레킹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혹시 부산 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여행에 노매드헬과 부산관광공사가
언제나 함께할 거라는 것 잊지 마세요!

노매드헬 소개

노매드헬은 더 많은 여성들이 솔로 여행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보고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글로벌 여성 여행자 앱이에요. 현재 176개국의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혼자 여행을 떠나든 전 세계에 있는 노매드헬들이 여러분의 여행을 응원할
거예요. 노매드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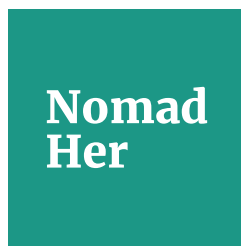
Download NomadHer

홈페이지: <https://nomadher.com>

Instagram: @nomad_her

앱 다운로드(iOS/Android):
<https://nomadher.page.link/download>





&



She can travel anywhere

@nomad_her
<https://nomadher.com>
<https://www.visitbusan.net/kr/index.do>

Design by Jeannine Phan
Edited by Soyeon Bae, Yeji Kim, Abby Zhang